

5주차

조선시대 신분에 따른 결혼과 이혼

김인호

학습목차

01. 조선시대 혼인 관념과 특징

- 조선시대의 혼인 관념
- 조선시대 혼인의 특징

04. 조선시대 결혼에 관한 금지법과 양반의 이혼

- 조선시대 혼인의 금지사항
- 조선시대 양반의 이혼 방식

학습목표

02. 조선시대 혼인과 거주방식

- 조선시대의 혼인과 법·행정
- 혼인 후 거주 방식과 혼인 과정

05. 조선시대 일반인의 이혼

- 일반인의 이혼 사례
- 조선시대의 혼인과 유교

학습내용

03. 조선시대 부부생활과 투기 금지

-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
- 조선시대 부부와 투기 금지

2차시

조선시대 혼인과 거주 방식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조선시대 혼인 연령을 살펴본다.
- 혼인 이후의 거주방식에 대해 살펴본다.
- 조선시대 혼인 과정을 살펴본다.

학습내용

- 조선시대의 혼인과 법 · 행정
- 혼인 후 거주방식과 혼인 과정

조선시대의 혼인과 법·행정



혼인 관련 법이 수록된
《경국대전》

혼인 시기에 대한 법

- 조혼 금지: 12세 이하 처녀 혼인 금지
→ 14~20세 이내에 혼인하도록 함
※ 혼인 기한 넘기면 혼주 처벌

혼인 시기에 대한 법

- 사대부 남성은 부인 사망 3년 후 재혼 가능
- 단 1년 후 가능한 예외 경우도 존재
→ 부모의 명령이 있거나 후사 없는 40세 이상

혼인 어려운 빈민

혼인 어려운 빈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

- 한성부와 각 도 관찰부에서 담당

혼인 어려운 빈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

- 한성부와 각 도 관찰부에서 담당
 -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내 결혼시킴
 - 친척이 혼수를 갖추도록 권유
 - 고아인 양반의 딸은 쌀을 지급해 혼수 보조
 - 이러한 처리 과정을 국왕에 보고

혼인 후 거주 방식과 혼인 과정

일반인의 혼인 문화

- 남귀여가혼(男歸女家婚), “장가를 감”
 - 남성이 여성 집에서 결혼 생활
 - 고려시대의 전통 계승
 - “시집을 가는” 친영은 16세기 이후 보급



평생도에서 결혼 후 신행 모습

남귀여가혼의 배경

- 역사문화적 배경은 명확하지 않음
두 가지 추정

남귀여가혼의 배경

- 두 가지 추정
 - 친영보다 양가 관계가 긴밀해짐
 - 여성 측에서 남성 집안을 지원하는 효과
 - ※ 여성 집안의 경제력으로 유능한 남성을 출세시키는 것이 당시 사대부가의 관행

《청대일기》에 보이는 혼인 이후의 거주 방식

- 1725년 권상일의 아들이 처가에서 혼례
- 신행 간 아들이 9일 후 귀가 준비



전통 혼례 장면

《청대일기》에 보이는 혼인 이후의 거주 방식

- 12일 후 아들 귀가
- 며느리는 같이 오지 않고 친정에 거주

《청대일기》에 보이는 혼인 이후의 거주 방식

- 권상일 아들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처가에 감
- 혼인 2년 5개월 후 며느리도 권상일의 집으로
- 이후 아들 출산

사임당 신씨의 사례

- 혼인 후 2년 만에 잠시 서울 시댁에 인사
- 이후에도 시댁보다 친정 강릉에서 주로 생활
- 결혼 20년 만인 38세에 시댁으로 이사



신사임당의 산수도

[출처01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3187>

[출처02] 국립고궁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1063>

[출처03] 김인호 촬영

[출처04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37410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정다영

교안
이유정

영상
김록현